

글로벌 미디어 시대, 한국형 언론중재 모델에 ‘관심’ 집중 - 17개국 언론인 23명 위원회 방문

- 17개국 해외 언론계 인사 23명이 위원회를 5월 28일 방문했다.
- 위원회는 방문 인사들에게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의 언론현황 및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한국 전통의 비빔밥과 막걸리를 함께 하면서 ‘한국의 맛’을 소개했다.
- 정학철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인터넷과 SNS 등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또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위원회의 언론분쟁 해결 절차는 신속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광진 사무총장은 “위원회 조정절차는 법원 판결과 달리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절차로 화해 · 조화 ·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주평화포럼 참석을 위한 해외 언론인들의 방한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덜란드 지오그래피(Geografi) 잡지사, 리비아 국영방송국, 중국 선양(沈阳)TV 등 17개국 22개 언론사의 외국 언론인 23명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로스쿨과 ADR 전문가 양성 MOU 체결

- 위원회는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효숙)과 갈등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권성 위원장은 “언론조정 · 중재제도와 같은 소송 외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향후 ADR제도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 전효숙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실무학습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실무수습 및 ADR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양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